

### 목회의 프락



정용영 목사  
청풍은성교회 담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1장 14절

기독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통한 눈물과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단순 지식과 정보의 교환에 그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논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부활을 기억합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와 고난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 구원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독교의 출발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충격을 안고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모여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기독교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죽음은 생명으로 생명으로 계속 이어 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이제는 고난의 목상을 지나서 부활을 새겨야 할 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2026년 부활절에 예수그리스도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 부활이 현재의 고난과 절망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영원한 생명이 될 확신하는 생명의 기회로 채워지는 은혜가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 이주의 추천음반

기획 : 광수미디어 (:한국)



### 김소중 - 돌아보고 들보는 계절

김소중 정규 앨범 '돌아보고 들보는 계절'

지난 10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보컬리스트로, 싱어송라이터로, 워십 리더로 꾸준히 활동을 해온 김소중이 2024년 12월 발매한 정규앨범 [돌아보고 들보는 계절]

성경 말씀에 담긴 다양한 풍경과 의미들을 그녀만의 시선으로 담아낸 이 앨범은 앨범의 전곡을 김소중이 작사 작곡하고, 기타리스트이자 프로듀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남편 브레이크브소서가 프로듀싱과 편곡을 맡아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 온 부부의 음악 색깔을 엿볼 수 있다. 김소중 특유의 시려 깊은 가사와 따뜻한 멜로디, 곡마다 다양한 장르의 옷을 입혀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자 하는 브레이크브소서 특유의 세심한 편곡은 이 앨범 전체의 메시지를 관통한다.

또한, 타이틀곡인 안식은 이 시대 상징적인 CCM 아티스트 이삼열이 건반 연주를 리얼 피아노 사운드로 담아내어 곡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한 곡의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도 하지만, 앨범의 수록 곡을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마음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앨범을 발매하였다는 김소중은 CD가 사라져가고 무엇이든 점점

빠르게 소비되고, 쉽게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풍조에서 리스너들이 조금 천천히 말씀 앞에 정렬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다가 작은 에세이 형식의 앨범으로 정규 앨범을 제작하였다.

앨범을 구입하면 그녀가 곡을 쓰며 써온 글들과 사진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프롤로그]

나의 작은 기록은 노래가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고 구겨진 편지가 되기도 하고 숨겨둔 일기장이 되기도 하고 ...

그렇게,

삶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작은 제 삶을 통과하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 영원을 견고 있는 발견마다 쓰여진 글, 불려지던 노래들을 담았습니다.

누군가 내 노래들을 들었을 때 만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분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찌면, 가장 큰 목적이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지루한 고난의 계절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긴 겨울의 시간도, 결국 저마다 아름다운 그 시간의 계절색을 품고 있었음을 보곤 합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분과 함께 걸으며 그 속에서 발견하는 창조주의 아름다움.

그 모든 순간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_ 김소중



물론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절기지만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역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죽음에 가둘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자체입니다. 그분이 사망에 머물 수 없어 다시 살아난 기쁨의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언제를 두고는 말이 많지만, 부활주일 사순절은 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를 따지다 보면 늘 변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정확한 날에 기념

할 만큼 성경적 진리를 시작하고 목상적인 언어로 표현한 인물입니다. 곡조는 미국 교회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로웰 메이슨(Lowell Mason)이 붙였는데, 단순하면서도 경건한 선율로 회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찬송은 십자가의 영광을 목상하며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결단을 강조합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143장/통 143장) 역시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곡으로, 주님의 고난과 인간의 죄를 깊이 성찰하며 회개와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곡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후윌슨(Hugh Wilson)이 작곡한 Martyrdom 선율로, 단순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죄인 된 인간을 위해 흘리신 보혈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노래함

와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장중한 절과 힘찬 후렴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선언은 무덤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이 곡은 부활절 예배의 절정에서 성도들께서 함께 고백하는 대표적인 찬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는 미국 복음송 작곡가 필립 블리스(Philip P. Bliss)께서 남기신 작품으로, 부흥운동의 현장에서 널리 불리며 퍼져 나갔습니다. 밝고 힘찬 선율 속에 “구주 예수 부활하시 사망 권세 이겼네”라는 확신의 고백을 담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성도들께서 함께 노래하도록 이끕니다.

두 곡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신앙 공동체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에 선포하는 살아 있는 증언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찬송이 고난과 헌신을 목상하게 한다면, 이 부활 찬송들은 승리와 소망을 힘차게 노래하며 성도들께 부활의 확신을 새롭게 심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양!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이 동 영  
에이노스 찬양선교사

###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대망의 부활절

하게 됩니다.

이 맘때에 늘 부르는 찬양,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5곡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통 147장):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곡입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통 143장): 주님의 고난에 대한 감동과 회개를 담은 찬송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150장/통 135장): 십자가를 목상하며 죄 사함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149장/통 147장)는 영국의 찬송가 작가 아이작 와츠(Isaac Watts)가 가사를 쓴 곡으로,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

니다.

갈보리산 위에(150장/통 135장)는 미국 복음 전도자 조지 베너드(George Bennard)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한 곡입니다. 그는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담아 이 찬송을 만들었고, 이후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서 크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드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단순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가 두 곡은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노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는 미국 침례교 목사 로버트 로우리(Robert Lowry)께서 직접 작사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일 드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 339-9905. FAX 061) 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 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 010-7676-6706  
<http://peacemind.co.kr>